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야곱은 본래 속이는 자이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근심을 하나님보다 더 믿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이자 변화된 사람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스라엘'로서 자녀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여전히 내 감정이나 생각, 세상적 근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으려는 '야곱'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A Blessing Worth Giving

Passage: Genesis 49:1-9 (ESV)

Date: August 9, 2026

Pastor: Dong Suk Chung



In Genesis 49, before Jacob died, he gathered his 12 sons and said: "Assemble and listen, O sons of **Jacob**, listen to **Israel** your father." Last week, we discussed that he had two names. "*Jacob*" was a liar who trusted himself more than God. "*Israel*" represents the redeemed believer—transformed by God's grace through Jesus Christ, and capable of delivering God's blessings.

On our own, we're like Jacob. But when Jesus changes us, we become new people who can pass on the truth. As born-again believers, our greatest calling is to live and speak not out of our old "*Jacob*" nature, but out of our renewed "*Israel*" identity.

This connects to something else. Why do so many people outside the church accuse Christians of being fake? It's not just because the world got more cynical. It's because real, living worship has stopped happening in a lot of churches and many are still living as "*Jacob*". Many believers think worship means showing up on Sunday and participating in church activities. But those rules are from the Old Testament. Everything changed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Now, each believer who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is a living temple of God.

We are now members of a royal priesthood, moved by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Every step of a life lived in the Spirit, wherever we are, becomes an act of spiritual worship. When someone receives Jesus, that person becomes a living witness for Him. What matters most isn't a great sermon from the pulpit. It's every believer being able to say: "Here's what Jesus is doing in my life." That kind of real testimony is what actually changes people, not fancy words.

God doesn't need you to have a seminary degree or knowledge of the Bible to use you. What He wants is for you to die to yourself every day. When you stop trying to make something happen in your own strength, surrender to Him and become an empty vessel, Jesus does the work Himself through you. That's His job, not yours to force into happening.

Now look at the blessings Jacob gave his sons. They're a mirror for us. Reuben, the oldest, should have received the greatest honor. But he lost it because he sinned against his father, reaching for something that was never his to take. That mistake points back to Adam, who was made to reflect God's glory but reached for God's place instead. That's really the root cause of every worried heart ever since. The worst curse isn't sickness or poverty. It's spending

your whole life trying to climb to a place you were never meant to reach; trying to carry burdens that were never yours to carry. Real peace begins the moment you admit, "I'm trying to be God in my life, but I am not God and I can't fix everything."

That truth has to become something you actually fight for, not just an idea you agree with. When worry or anxiety rises up inside you, notice it. Name it. That feeling is a warning sign—it means some part of you is still trying to be God. In that moment, speak against it directly and banish it. Remind yourself: the birds of the air do not make their own bread and God takes care of them, as He takes care of me. That quiet, inner battle matters more than any outward show of strength. It's the real fight of faith. And here's the good news: whatever the enemy meant to use to destroy you, God can turn it into a blessing. Whatever weakness you're carrying, there's no need to be anxious about it, because God will handle it. Don't trust your emotions or your feelings. Hold on to God's Word instead—because it's when we hold onto His Word that the Holy Spirit moves and helps us, not when we pray based on our own thoughts, wishes and emotions.

Simeon and Levi reacted in anger that resulted in violent revenge. Jacob cursed them and said their families would be scattered instead of staying together as one tribe. That sounds like punishment. But God turned that scattering into a blessing. Because the Levites were spread out through every tribe, they became the priests who could teach God's law to the whole nation. What looked like a curse became the way God's people learned to worship Him. This is how God's grace works. He can take our worst failures and, when we turn back to Him, use them for good.

Jacob blessed Judah, calling him a young lion and said that kings would come from his family, including one whose robe would be washed clean like it had been dipped in wine. This was a promise about Jesus Christ and whose blood washes us clean and makes us completely new.

Ask yourself: if you had one last moment with the people you love, what would you tell them? Would it be vague reassurances? Or would it be the truth that God changes liars into new people, that He turns our failures into blessings, and that His kingdom starts quietly, in you, before it ever reaches anyone else? Let us cast off our worries, trust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and live each day as a transformed "*Israel*"—overflowing with the joy, blessings and peace of the Gospel.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8월 23일 2026년

NASUNGCHURCH.NET

121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9장 1-9절

날짜: 8월 9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할 일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승리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야곱과 같이 죄뿐인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까? 단순히 걱정스럽고 한탄스러운 세상의 죽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너희에게 생명의 말을 하는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나와 한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예배를 다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진짜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

타나셔서 일하시고 전도하시며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과 그것을 축복으로 바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자 능력, 기력의 시작으로 탁월함과 위엄을 가졌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모습과 같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르우벤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염려, 걱정, 근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원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듯, 스스로 조물주인 체하며 "내가 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저주 중의 저주이며 선악과의 독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선악과임을 깨닫고 명령하여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만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닌 '누리는 자'로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세겜과 부족 남자들을 할레받게 한 뒤 잔인하게 도륙하고, 짐승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흠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와 편에 섰던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로서 온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흠어져 살게

됨으로써, 오히려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과거의 악함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완전한 축복의 도구로 바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 권세(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예언 받았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느낌, 의심을 믿지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금주간 담임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십니다. 여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한글학교가 9월 13일부터 매주일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로비에 준비된 한글학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과 방명석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로렌하이츠 2구역 소속인 한예정 자매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한국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2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증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송종철 장로 (모세선교회)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세훈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